

# “쉽 없이 달리는 청춘들... 잠깐 쉬어가며 청춘의 향연 즐기자”

‘세븐틴’, 4개월만 스페셜 앨범 발매... 긍정의 메시지 담아  
 멤버 전반 앨범 작업 참여로 더욱 현실적인 모습 녹여내

“청춘에게 꼭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원을 저희만의 방식인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어요.”(도겸)

대세 그룹 ‘세븐틴’이 4개월 만인 19일 오후 6시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Semicolon])’을 발표했다. ‘[세미콜론]’은 쉽 없이 달리는 청춘에게 ‘잠깐 쉬어가며 청춘의 향연을 즐기자’라는 성숙한 긍정의 메시지를 담았다.

멤버 전반이 앨범 작업에 참여해 더욱 공감 가고 현실적인 청춘의 모습을 녹여냈다.

이날 앨범 발매 전 세븐틴 멤버 버논은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마냥 쉽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면서 청춘을 즐길 수 있는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심어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팀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우지는 “멤버들의 앨범 참여도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늘었다”면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청춘들이 한번쯤 느꼈을 법한 생각들을 고민하다 자연스럽게 이번 앨범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 데뷔한 세븐틴은 평소 소년 같은 이미지로 인기를 누렸다.

특히 ‘예쁘다’ ‘아주 나이스(NICE)’, ‘어쩌나’ 등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한 곡으로 인기 그룹 반열에 올랐다.

작년 9월 발매한 앨범 ‘언 오드(An Ode)’에서 절제된 색채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에 발매한 앨범 ‘헝가레’를 통해 다시 명랑하고 푹푹 튀는 음악으로 ‘청춘’들을 응원했다.

이번 스페셜 앨범 역시 비슷한 맥락을 이어간다.

여러 시대의 청춘을 스윙 장르를 비롯하여 레트로 펑크, 라틴과 보사노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풀어냈다.

특히 스윙 장르 기반의 타이틀곡 ‘홈런(HOME:RUN)’은 경쾌하고 타격감 넘치는 사운드로, 제목 자체가 지닌 어감의 짜릿함을 더했다.

현시대를 살아가며 고군분투 하고 있는, 무한한 성장을 지닌 청춘에게 선사하는 힘찬 응원곡으로 위로를 선사한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소화가야 하는 세븐틴 멤버들은 오히려 쉬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도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희에게는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여행을 하는 소소한 모든 것이 쉬어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바쁜 삶에서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쉬어가는 것이, 저희가 새롭고 다양한 음

악을 만드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더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이외에도 ‘도레미’, ‘헤이 버디(HEY BUDDY)’, ‘마음에 붙을 지퍼’, ‘아! 러브(AH! LOVE)’의 다채로운 믹스 유닛 곡과 일상 속 잠시나마 힘든 일을 잊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노래 ‘겨우’까지 총 6개의 곡을 수록했다.

특히 무엇보다 선주문량 110만 장을 돌파하며 전작 미니 7집 ‘헝가레’에 이어 ‘더블 밀리언 셀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미니 7집 ‘헝가레’의 선주문량인 106만 장을 경신한 숫자다.

세븐틴은 최근 가장 급부상한 K팝 그룹으로 통한다. 일본 오리콘 차트도 휩쓸고 있다.

특히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6월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레이블로 편입됐는데,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 레이블을 대표하는 팀으로 꼽힌다.

이런 상승세에 책임감도 커질 법하다.

도겸은 “멤버들 모두 무대에 대한 책임감과 진정성이 커졌어요. 이전보다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에스콰스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세븐틴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저희 노래를 듣는 시간 만큼은 즐거움으로 가득차면 좋겠어요”라고 거듭했다.

세븐틴 멤버들이 생각하는 성공 기준은 무



엇일까. 승관은 “예전에는 (차트) 성적이나 공연장 규모로 성공 여부를 판단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세븐틴 팬이라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

자부심을 느껴요. 반대로 저희는 캐럿(세븐틴 팬덤)이 자랑스러운데 반대로 저희를 자랑스럽다고 해주시니까요. 정말 가수 하걸을 잘했고, 제 팀이 세븐틴이라 행복합니다.”



영화 ‘쿨’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제공)

## 영화 ‘쿨’, 극장 개봉안하고 넷플릭스로 직행

내달 27일 전 세계 단독 공개

영화 ‘쿨’(감독 이충현)이 극장 개봉 없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넷플릭스로 직행한다.

넷플릭스 측은 20일 “쿨이 다음 달 27일 전 세계 단독 공개된다”고 밝혔다.

‘쿨’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된 서로 다른 시간대의 두 여자가 서로의 운명을 바꿔주면서 시작되는 광기 어린 집착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단편 ‘뭉갸’으로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과 제11회 파리한국영화제 최우수단편상 등을 받은 신에 이충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박신혜와 전종서가 출연한다.

박신혜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낯은 전화를 연결했다가 과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서연으로 분해 필모 사상 가장 강렬한 스릴러에 도전한다.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한 ‘버닝’으로 영화계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전종서는 연쇄살인마로 변신한다.

과거를 바꾼 대가로 살인마를 마주하게 되는 서연과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알고 역놀렸던 광기를 폭발시키는 영숙을 각각 연기한 박신혜와 전종서의 강렬한 변신이 기대를 모은다.

제작사 용필름 측은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에 ‘쿨’을 전 세계 시청자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전했다.

## 김혜수·이정은 ‘내가 죽던 날’ 내달 12일 개봉 확정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메인 예고편 공개

영화 ‘내가 죽던 날’이 11월12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측은 20일 ‘내가 죽던 날’의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내가 죽던 날’은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진 소녀와 삶의 벼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무연의 목격자까지 살아남기 위한 그들 각자의 선택을 그린 이야기다.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가 출연한다.

예고편은 나직한 목소리로 누군가 남긴 유서를 읽는 형사 현수(김혜수)와 그 유서를 써 내려가는 소녀 세진(노정의)의 목소리가 한데 겹쳐지며 시작한다.

범죄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되어 삼마

을에서 보호를 받던 소녀 세진은 태풍이 치던 어느 날 절벽 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한편 자신이 믿었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삶의 벼랑 끝에 선 형사 현수는 복귀를 앞두고 세진의 사건을 맡아 그 흔적을 추적한다.

무연의 목격자 순천택(이정은)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을 탐문하며 소녀가 사라진 이유를 되짚어보면 그녀는 사건 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동시에 내면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여고생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단편영화 ‘여고생이다’(2008)로 제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최우수상을 받은 박지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뉴스스

## 로건 아내 악플 고통 호소→유산...“악플러 엄중 처벌”

“허위 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은 로건(본명 김중영)의 아내가 유산했다.

글로벌 보안 및 전술 컨설팅 회사 무사트는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로건님 가족분들을 대신해 비보를 전한다”라며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렸다.

무사트 측은 “최근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로건 교관님의 아내분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던 중 벅속의 소중한 생명을 하늘로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로건 교관을 사랑해주시는 팬들께서는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인을 제공한 악플러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사트 측은 “원인 제공 모든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며 무사트 및 관련 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튜브 정배우는 로건과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함께 출연한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에 드나들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며 ‘몸캠 피상’을 제기해 2차 가해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로건은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정배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뉴스스

## 이수영, 데뷔곡 ‘아이 빌리브’ 21년 만 리메이크

동양적 분위기의 멜로디·애절한 음색 더해져 큰 사랑받아

가수 이수영이 데뷔곡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리메이크한다.

19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수영은 이달 말 ‘아이 빌리브’ 리메이크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이 빌리브’는 지난 1999년 발매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수영의 데뷔곡이다.

당시 동양적 분위기의 멜로디에 이수영의 애절한 음색이 더해져 감성적인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앞서 이수영은 지난 5월 리메이크 프로젝트 앨범 ‘마스크(Masque)’를 발매하며 ‘멍그리나와 라라라’, ‘스치듯 안방’을 새롭게 불러 화제를 모았다.

## CGV, K-컬처 페스티벌 ‘케이콘택트’ 생중계

전국 38개 극장에서 23·24일 무대 생중계

CGV는 세계 최대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 ‘케이콘택트(KCON:TACT)’ 시즌 2를 전국 38개 극장에서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25일까지 열리는 ‘KCON:TACT season 2’의 공연 중 23일과 24일의 무대를 생중계한다.

23일에는 엠넷(Mnet) 보이그룹 경연 프로그램 ‘로드 투 킹덤’에서 인상적인 무대로 화제를 모은 원어스, 온앤오프, 더보이즈, 배리베리

(VERIVERY)의 공연이 펼쳐진다.

24일에는 AB6IX, 하성운, 김재환, 박지훈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양일간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생중계하며 티켓 가격은 1만5000원이다.

CGV 관계자는 “전 세계인이 기대하는 KCON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없는 지금, 공연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극



장 생중계를 기획했다”며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통해 팬들이 안심하고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